



미 증시, 엔비디아, 테슬라 급등에 힘입어 반등

미국 증시 리뷰

21 일(월) 미국 증시는 잭스홀 미팅,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관망심리가 우세한 가운데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유입되며 나스닥 중심으로 4 거래일만에 반등. (다우 -0.11%, S&P500 +0.69%, 나스닥 +1.5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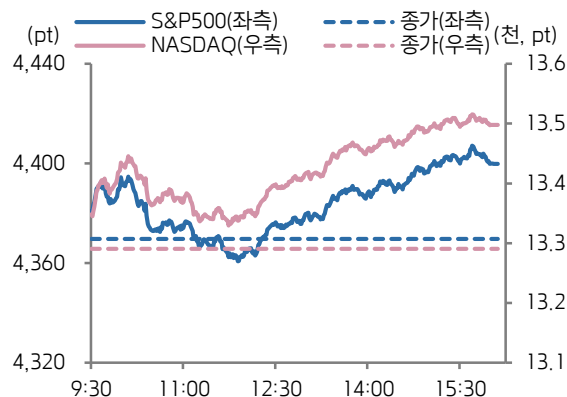
중국 인민은행이 부동산 위기와 경기 둔화 우려에 1년 만기 LPR 금리를 3.45%로 10p 인하, 그러나 5년 만기 LPR 금리는 4.2%로 동결. 또한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을 돕기 위해 1조 5000억 위안(약 275조 원)의 특별유자 채권 발행을 허용. 올해 중국 5% 경제 성장률목표에 대한 우려 확대, 일각에서는 부채와 부동산에 의존하는 기존 성장 공식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중기 성장률이 2~3% 안팎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 제기.

현지시간 22일 개최예정인 브릭스(BRICS, 브라질·러시아·인도·중국·남아프리카공화국) 정상회의에서 브릭스의 외연 확장과 더불어 회원국 간 교역 시 달러화 비중을 낮추고 현지 통화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보도. 중국은 G7과의 대결 구도 형성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국가는 브릭스 가입 관련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. 현재 브릭스 5개국은 전 세계 GDP의 27%를 차지하는 한편 G7의 비중은 약 43% 차지.

업종별로 IT(+2.3%), 경기소비재(+1.1%), 통신(+0.8%) 업종 강세, 부동산(-0.9%), 필수소비재(-0.6%), 에너지(-0.6%) 업종 약세. 23일 실적발표를 앞둔 기대감 유입되며 엔비디아(8.47%)가 급등한 영향으로 AMD(2.63%), 인텔(1.19%), 마이크론(0.58%), 퀄컴(0.53%)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% 가까이 상승. 애플(0.77%), 알파벳(0.71%), 아마존(1.1%), 메타(2.35%) 등 시총 상위주 반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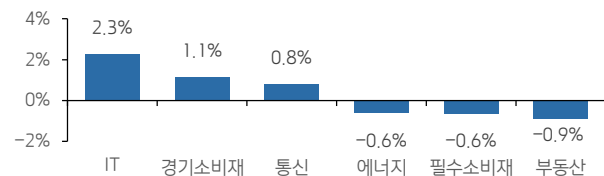
중국 전기차 기업 주가는 중국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경쟁심화 우려가 겹치며 약세. 그러나 BofA가 중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샤오펑(9.68%)은 폭스바겐의 투자 이후 2025년 흑자전환이 전망된다는 이유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영향으로 급등. 테슬라(7.33%) 역시 가격 인하와 마진악화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사이버트럭 출시와 FSD(완전자율주행)의 채택 확대 등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목표주가 상향조정된 영향으로 급등.

S&P500 & NA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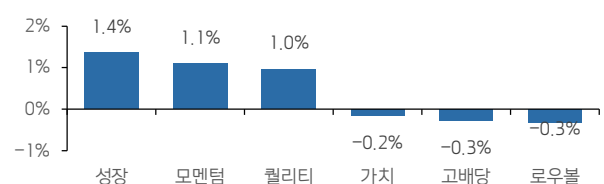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508.80	+0.17%	USD/KRW	1,342.73	+0.33%
코스피 200	328.84	+0.13%	달러 지수	103.33	-0.04%
코스닥	888.71	+1.3%	EUR/USD	1.09	+0.01%
코스닥 150	1,438.92	+2.32%	USD/CNH	7.29	-0.03%
S&P500	4,399.77	+0.69%	USD/JPY	146.20	-0.01%
NASDAQ	13,497.59	+1.56%	채권시장		
다우	34,463.69	-0.11%	국고채 3년	3.790	+6.4bp
VIX	17.13	-0.98%	국고채 10년	3.967	+6.2bp
러셀 2000	1,856.01	-0.18%	미국 국채 2년	5.001	+5.8bp
필라. 반도체	3,560.74	+2.83%	미국 국채 10년	4.338	+8.3bp
다우 운송	15,705.01	+0.03%	미국 국채 30년	4.447	+7.1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224.87	+0.28%	WTI	80.72	-0.65%
MSCI 전세계 지수	669.11	+0.35%	브렌트유	84.46	-0.4%
MSCI DM 지수	2,910.52	+0.45%	금	1923	+0.34%
MSCI EM 지수	959.79	-0.48%	은	23.34	+2.67%
MSCI 한국 ETF	61.08	+0.68%	구리	371.85	+0.34%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					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+0.68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0.23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27% 하락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338.0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1. 장중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 흐름
2. 테슬라, 샤오핑 등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 강세가 국내 이차전지주에 미치는 영향
3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및 엔비디아 실적기대감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지난주 금요일 옵션 만기일 이후 첫 거래일이었던 전일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급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. 미 국채 10 년물 금리는 장중 2007 년 11 월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4.35%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과매도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. 주가 측면에서는 현지시간 23 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까지 긍정적 흐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.

매크로 측면에서는 이번주 내내 잭슨홀 경계심리가 시장에 주입되는 과정에서 미 10 년물 금리의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.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제약적인 주가 환경을 만들어낼 것. 파월의 매파적 발언이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 8 월 잭슨홀 회의 이후 시장은 8 주간 19% 하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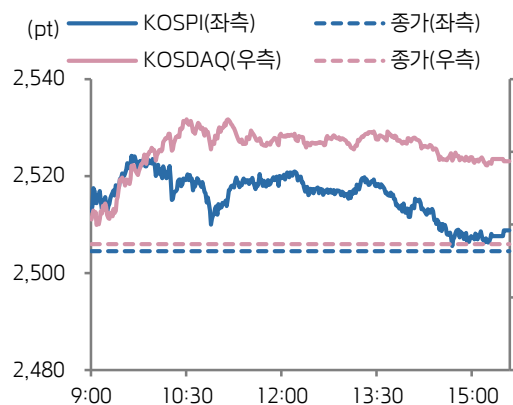
21 일(월) 국내증시는 반발매수세 유입되며 6 거래일만에 반등에 성공했으나, 금리상승 부담, 중국 인민은행 LPR 금리 인하폭 실망감 확산되며 상승폭 축소 (KOSPI +0.17%, KOSDAQ +1.30%)

금일 역시 잭슨홀미팅 경계심리와 중국 부동산 위기 우려가 상단을 제한하겠지만, 엔비디아 실적기대감 및 테슬라 급등에 힘입어 반도체, 이차전지 등 기존 주요 주도주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.

중국 인민은행은 1 년 만기 LPR 금리를 3.45%로 10p 인하한 반면 5 년 만기 LPR 금리는 4.2%로 동결하며 컨센서스 하회하는 결정. 중국 유동성 위기 불안 역시 지속되며 중국 증시의 급락과 함께 국내 항공, 면세, 백화점 등 중국 소비관련주 부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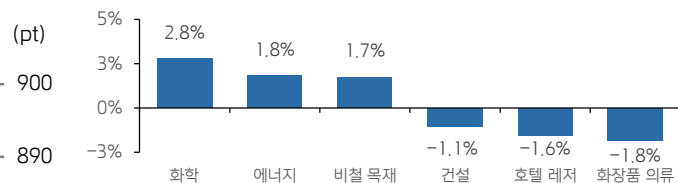
국내 증세 역시 그동안 중국 경기 불안에 연동되어 조정국면이 이어졌지만,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인식 및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 특히 이차전지 및 장비, 의료기기 등 테마 중심 장세가 코스닥 반등을 주도.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. 1 분기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 국내 반도체 및 HBM 관련주는 주도주가 되었었기 때문에 금번 엔비디아 실적 역시 최근 모멘텀에 부재한 반도체 업종에 변곡점이 될수 있을 것.

KOSPI & KOSDAQ 일종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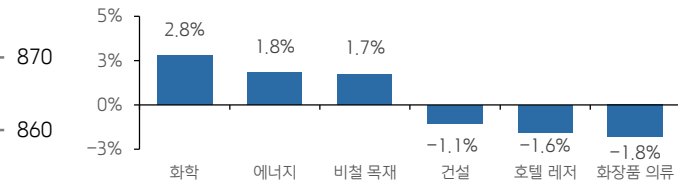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고지사항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